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연구부장에 양창범 박사 임명



◀ 양창범 부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4월 23일자로 질병연구부장에 양창범 박사를 임명했다. 양창범 질병연구부장은 앞으로 병리과, 세균과 바이러스과 및 조류질병과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축산과학원 축산연구소에서 '축산과학원'으로 명칭변경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원장 이상진)은 6월 13일 수원청사에서 농촌진흥청 김인식 청장을 비롯, 이상진 원장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



관명칭을 축산연구소에서 축산과학원으로 바꾸고 헌판식을 개최하였다. 축산과학원은 그동안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와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축산관련 기관(축산기술연구소 등)의 명칭이 유사하여 초래되는 혼란을 방지하고, 미래 성장 동력산업인 바이오장기생산 및 신약개발 등 첨단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국가 연구기관의 위상에 걸 맞는 기관명칭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6월 4일부로 대통령령에 의거 기관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주)체리부로와 무항생제 육계사육 시스템 개발 협약식 체결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원장 이상진)은 (주)체리부로(대표 김인식)와 지난 5월 22일 체리부로 대강당에서 '무항생제 육계사육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술 협약식을 가졌다. 양측은 FTA에 따른 앞으로의 무한한 국제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

해서는 “양계산물의 안전성, 수입산과의 차별성 및 고급 브랜드화를 통한 품질경쟁력 강화가 관건” 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산·연이 공동 노력키로 다짐하였다.

기술협약기간은 2007년 5월부터 2009년 12월말까지(3년간)로 주요내용은 국내·외 무항생제 닭고기 실태조사, 무항생제 육계사육시의 입추전·후 중점관리 항목 설정, 항생제 대체제를 이용한 무항생제 닭고기 생산 연구 등이며, 이에 따른 현장교육 및 무항생제 닭고기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최종의 목표로 두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용인출장소 준공식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강문일 원장)은 '07년 6월 8일 서울지원 용인출장소의 신청사 준공식을 갖고 보다나은 수입축산물 검역·검사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그동안 용인출장소는 국내 전체 수입축산물의 약 78%를 처리하면서도 자체 청사 없이 이천, 신갈 등지에서 셋방살이를 하여왔으나, 이번 용인출장소의 자체 청사 준공으로 민원인들에게 보다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출입기자단 간담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검역원장 취임 2주년을 맞이하면서 현안사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지난 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 마무리,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 종료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검사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지난해 말 발병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검역에 대한 발빠른 대응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조류인플루엔자 종식통보 예정('07.6.17)이고, AI 방역 실시요령 및 SOP 등 관련규정 보완·개선에 대해 7월 중에 발표할 될 것으로 보고하였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개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가축사육단계에서 축산물판매단계까지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개정하여 축산물의 HACCP 적용품목을 확대하고 도축장 위생관리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축산물가공품인 조제유류, 베이컨 및 염지란 등 3품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개발하여 반영하였고,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 목적으로 식용부산물 위생관리 항목과 오리도축장의 잔모처리과정 위생관리 항목 및 미생물검사

기준을 추가 하였으며, 현행 HACCP 실시상황 평가표의 일부 항목과 HACCP 적용작업장의 표 시간판 내용을 보완하였다.

전국농민단체협의회 개방대비 품목대책 토론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회장 엄성호)는 지난 18~19일 한국마사회 본관 1층 대강당에서 '개방대비 품목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미FTA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로 이양희 전 농해수위원장, 이상길 축산국장 등 정부, 학계, 소비자, 언론인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토론자들은 한미FTA로 인한 축산부분의 피해를 공감하며 축산정책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했다. 이날 한 토론자는 생산기반도 중요하지만 생산물을 팔 수 있는 시장이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하며 농가들 또한 시장지향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포축협 김포술난 양재 하나로마트 입점

김포축협(조합장 임한호)의 김포술란이 양재 하나로마트에 들어간다.

지난 1일 김포축협은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임한호 김포축협 조합장, 임재룡 김포축협 이사, 임교석 농협중앙회 김포시 지부장, 강병수 김포계란유통센터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점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입점식을 기념해 기존 구입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촉행사를 벌이며 고객들에 많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 김포축협의 하나로마트 입점은 큰 의미를 가진다. 지역축협의 적극적인 계란경제사업을 이룬 첫 시도이자 달성한 쾌거이다. 김포축협은 지난 겨울 산란계열화 사업 협약식을 가진 이후 김포지역 작목반을 구성하고 김포계란유통센터를 통해 유통을 단일화하여 계란경제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한국양계농협 사업전이용대회 개최



한국양계농협(조합장 오정길)은 지난 6월 5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조합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전이용대회를 개최했다.

오정길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조합은 국내시장 점유율 10%달성을 목표로 한국양계농협이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조합원의 출자금 증대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양계농협은 2006년 자산 5천억원 달성했으며 매년 흑자 달성, 80% 예대비율 향상 등 체계적인 목표를 골자로 하는 조합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홍혜걸 박사가 강사로 초빙되어 건강을 혈관질환의 심각성과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을 통해 혈관질환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동으로 팔과 허벅지에 근육을 만들어 혈관의 쌓이는 노폐물을 제거시켜야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근육형성에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좋은 음식으로 계란을 꼽으며 이로운 식품임을 강조했다.

한국가금학회 이사회 개최 학술지 등재 위한 경정예산 편성



한국가금학회(회장 김기석) 이사회가 지난 7일 대한양계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가금학회 춘계심포지움 결산보고와 재정현황 및 사무현황 보고가 있었다. 안건토의로는 한국가금학회지가 2006년 한국학

술진흥재단 후보등재지에 오른 이후 최종 등재지로 선정되기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금년에 있을 2차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운영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 있을 한국가금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개최안에 대해서는 경북대학교에서 11월초 9일과 16일중 택일하여 추진키로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한국축산경영학회 개방시대의 한국축산 선진화 방안 심포지움



한국축산경영학회(회장 김정호)가 지난 14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국제회의장에서 ‘개방시대의 한국축산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하계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발표에 앞서 황민영 농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장과 육완방 건국대 동물생명과학대 학장으로부터 축사가 있었으며, 최준구 양계협회장이 인사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날 행사는 5주제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포스터 발표(9편)와 총평도 이어졌다. 기초연설로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이 ‘한·미 FTA 축산부담 보완대책’에 대해 발표가 있었으며, 제1주제로 정민국 박사(농촌경제연구원)가 ‘축산농가의 소득안정과 과제’를 소, 돼지, 닭 분야로 나

뉘 설명이 있었다. 이어 권오욱 교수(영남대)가 '자연순환형 농업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장경만 교수(한경대)가 '한우생산이력추적제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최승철 교수(건국대)가 '축산물 HACCP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마지막으로 한성일 교수(건국대)가 '우수 축산물 브랜드 육성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가 있었다.

가금질병연구회 춘계학술세미나 개최 HPAI에 대한 주제발표 이어져



가금질병연구회(회장 나만채)는 지난 7일 천안 상록리조트 컨벤션 센터에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제1부 HPAI 주제발표와 제2부 박사학위 취득자 발표가 이어졌다. 제 1부에서는 '06/07년도 HPAI에 감염된 가금의 육안적 병변'을 주제로 검역원 조성준 박사가, '국내발생 H5N1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특성'을 주제로 검역원 이윤정 박사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동향, 전파요인 및 금후전망'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김재홍 교수가 각각 발표에 나섰다. 2부에서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평가'를 주제로 하동물병원 하봉도 박사가, '국내 가금류와 야생 철새류 유래 조류인플루엔자의 질병역학, 병인론, 예방 및

치료'를 주제로 건국대학교 권지선 박사가, '역유전자 기법으로 제작한 최근 강병원성주에 대한 뉴캐슬병 백신'을 주제로 (주)바이오포아 조선희 박사가, '오리간염바이러스의 분자적 특징과 생백신후보주의 확립'을 주제로 검역원 김민철 박사가 각각 발표를 마쳤다.

가금관련단체장 한자리에 가금관련단체 협의회 논의



큰 위기를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 가금관련단체 협의회(가칭)가 생성될 전망이다.

양계협회, 계육협회, 토종닭협회를 비롯 하림, BBQ 등 가금관련 단체들은 지난 20일 롯데호텔에서 가금관련단체 협의회 발족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현재 가금관련업은 대표적인 단체가 없어 비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각 협회나 협의회만 있는 상황에서 개별적인 효과만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큰 위기를 효과적으로 공동대처하기 위해 각 단체 회장단들이 모였다.

이날 회장단들은 업계가 하나로 뭉쳐서 가금 산업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즉각 해결할 수 있는 협의회 구성에 합의하고 오는 7월 실무자들이 회의를 통해 더욱 구체적 안을 제시하기로 했다.